

# 가정 예배



- 우리 가족이 예배공간 만들기
- ① 가족과 함께 모일 공간을 정해요.
  - ② 성경이나 찬가, 말씀역사, 가정예배를 위한 식탁보 등을 활용에, 일상 공간을 거룩한 예배공간으로 만들어요!
  - ③ 진정한 찬양을 틀어 예배공간을 채워요

## 예배순서

## 성경이야기

여배의 부를..... 다 함께

우리 가족의 주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 ( )

하나님! 우리 가정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2절)..... 다 함께

말씀읽기..... 누기복음 24 : 7..... 다 함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성경 이야기 듣기..... 다 함께

감동 나누기..... 다 함께

Q.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Q.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다 함께

(조)부모 :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머리로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린이 :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감

사하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다 함께

## 부모님을 위한 Q&A 이슈영 가정예배



가정예배에는 매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슈영 가정예배'입니다. 이슈영 가정예배는 가족 전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핵심 주제로 하여 담임 혹은 주중에 드리는 가정예배를 말합니다. 이슈영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Family History Book'이라고 부르는 가정예배 밑줄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 혹은 그 주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눕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성취되거나 실패했던 모든 일들의 과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Family History Book'에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일상 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Family History Book'은 단지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Family History Book'을 활용한 이슈영 가정예배는 자녀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바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삼 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무덤 가까이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카다란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던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인들은 기뻐하며 마음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 14.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



**단절발생**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누가복음 24 : 7)

## 마음톡 Talk!

그림에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음톡 Talk!

여인들이 무덤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 심오톡 Talk!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 성경이야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한 제자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학교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